새 책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법정스님 지음·김계윤 그림)=불기 2564년(서기 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법정스님(1932~2010년)의 원적 10주기를 추념하는 책이다. 책에는 법정스님이 1960년대 초 불교신문에 게재한 불교창작 설화 13편을 모아 소책자 형태로 전법(傳法)을 위한 보급형으로 제작됐다. 김계윤 작가가 글에 그림을 입혔다. 불교신문사. 6000원.

▶문도선행록(김미루 지음)=책의 제목은 도를 물어 선적으로 걸어간 기록이라는 의미다.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이고, 화가인 저자가 3년간 사하라, 아라비아, 고비, 타르 등 지구상의 모든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 이뤄지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글과 사진으로 펼쳐낸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기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생생한 화두로 던진다. 통나무. 3만2000원.

▶토지와 자유(황보영조 지음)=에스파냐 현대사 연구자인 경북대 황보영조 교수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에스파냐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 실천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책이다. 당시 간행된 신문, 잡지, 팸플릿, 포스터 등 방대한 1차자료와 그동안 축적된 단행본, 논문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삼천리. 3만2000원.

▶진화와 창의성(안드레아스 바그너 지음)='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이론은 분명 생물학에 있어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윈은 자연선택의 과정이 곧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됐으며, 자연선택만으로는 그 도전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책은 주장한다. 이에 저자는 그런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진화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문학사상. 1만7500원.

▶조선의 2인자들(조민기 지음)=조선 역사 속에서 1인자의 자리를 노렸던 2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권력이 됐고,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책 속에는 건국, 창업, 욕망, 권력, 당쟁이라는 5가지 테마에 걸맞는 총 10명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하륜, 수양대군, 한명회, 임사홍, 김안로, 이준경, 송익필이 주인공이다. 책비. 1만9800원.

▶허튼 생각_살아간다는 건 뭘까(브리타 테켄트럽 글·그림, 김서정 옮김)=인간과 삶에 관한 조금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부터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운 심오한 철학적 질문까지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과 질문이 담긴 책이다.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가인 브리타 테켄트럽은 간결하고 시적인 글과 함께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질문을 던진다. 길벗어린이. 1만8000원. 송은범기자

40년이 흘렀지만 못다 부른 오월의 노래

광주 5·18민주화운동 다룬 신간 세 권

호텔리어가 증언한 열흘
무한 비평과 남겨진 과제

5·18은 한철이 아니다. 제주4·3을 4월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난 월요일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지만 못다한 5월의 사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부채감으로, 사명감으로 써내려간 신간들을 소개한다.

홍성표(일지·메모)·안길정(기획·집필)이 공저한 '호텔리어의 오월 노래'엔 증언자가 있다. '광주관광호텔에서 본 5·18'이란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겠다.

1980년 당시 광주관광호텔은 8층 건물로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5·18이 일어나자 관광호텔은 자체 폐점했지만 영업과장이던 홍성표는 그곳에 남아서 5·18의 열흘을 체험했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풀어냈다.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시 발생한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 5월 21일 금남로 주변 옥상에서 벌어진 저격수들의 조준 사격, 5월 27일 새벽 호텔 맞은편 오른 측면에 있던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은 오직 그만이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5·18 공식 기록에서는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지난 40년 동안 수백 번 되새겼을 호텔리어의 기억을 통해 살아나고 있다. 빨간소금. 1만3000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꺼지지 않는 오월의 불꽃'은 '5·18 광주혈사'란 부제가 붙었다.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배경 등 '광주항쟁'의 전주곡과 같은 역사, 광주항쟁 첫날부터 계엄군에게 진압되는 마지막 날까지 치열하고 끔찍했던 나날들, 광주학살의 주범과 공범, 남은 과제 등을 담았다. 저자는 광주 희생자와 유족에게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여전한 현실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죄는 물어야 하고, 용서는 죄지은 자가 잘못을 반성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레. 1만9000원.

김형중·이광호가 엮은 '무한텍스트로서의 5·18'엔 그간 5·18과 관련해 제출된 유의미한 비평과 연구 논문 열네 편에 새로운 시각과 성찰을 담은 다섯 편이 실렸다. 5·18에 대해 아직 발설되지 않은 진실의 영역을 성찰하려는 한국사회의 지적인 노력들을 만날 수 있다. '부끄러움과 저항', '국가를 넘어서', '5·18, 무한텍스트', '김현과 5·18'로 나눠 5·18을 사회과학·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본 글뿐 아니라 이를 다룬 문학작품과 영화 비평을 함께 묶었다. 문학과지성사. 2만6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모든 걸 싸구려로 만들어온 자본주의 전략

라즈 파텔 등 공저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인 닭고기. 거기에 현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가 있다면. 닭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조합해 가슴 근육을 부풀린다. 육계 농장과 사료용 토지엔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막대한 에너지도 싸게 공급된다. 계육 공장은 시급 25센트를 받는 노동자들로 굴러간다. 이들 노동자의 86%는 질병을 앓고 있고 대개 가족의 돌봄에 의존한다. 이 시스템으로 닭은 저렴한 식량으로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라즈 파텔·제인스 무어가 공저한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는 치킨 한 박스가 던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원과 진화, 불평등의 재생산 과정을 그렸다. 자연, 돈,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 등 일곱 가지 저렴한 것들의 역사에 주목해 자본주의의 오랜 전략을 들춰낸다.

책이 담은 메시지는 명료하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싸구려로 만듦으로써 작동해왔다." 저렴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적은 보상을 주고 동원하는 폭력'이다. 노동, 돌봄, 에너지 무엇이든 돈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늘지만 자본주의는 '새로운 저렴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인간과 다른 자연의 노동을 저렴하게 강제할 수 있는 장소'인 프런티어를 이동하고 확장해왔다.

이제 프런티어는 전에 없이 작은 반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자본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세계를 저렴하게 만들며 유지하는 게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린 생태의 위기를 겪으며 자연이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저자들은 인식, 보상, 재분배, 재상상, 재창조를 제안했다. 백우진·이경숙 옮김. 북돋움.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문순자 시집 '어쩌다 맑음'

노동하는 여자들에게 봄볕 들기를

문순자 시인은 신작 시집 '어쩌다 맑음'에서 노동하는 여자들의 시선으로 시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노산시조문학상을 받은 제주 문순자 시인의 새 시집 '어쩌다 맑음'엔 '농사일을 하는 여자'가 있다. 농부(農夫)가 아니라 농부(農婦)다.

시인은 이 계절을 감귤밭에서 알아챈다. 그에게 5월은 돌담에 기대 피어난 붉은 장미에 앞서 향기 날리는 하이얀 감귤꽃으로 먼저 온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흙을 일구고 감귤나무 키우며 살아가는 일상이 흩어져 있다.

'봄이면 버릇처럼 전정가윌 만진다/ 감귤나무 생목숨 다비한 지 10년 만에/ 아들놈 첫 월급 털어/ 감귤나무 또 심는다'는 '다시, 쓰다'에서 시적 화자는 일수 찍듯 밭으로 나선다. 농부는 그것도 모르는 땅이 야속하다. 죽어라 김을 매도 돌아서면 이내 무성해지니 말이다.

시적 화자 농부의 시선
다시 심은 감귤나무들
쇠죽은못 설화 생명력

참깨, 기장, 양배추 별별 농사 다해봤다는 시 속의 농부는 몸으로 영농일기를 쓰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를 배운다. 폐원한 감귤밭에 새로 뿌리내린 감귤나무의 첫 꽃봉오리를 따는 농부는 '차마 저들에게 어찌 열매를 바라랴'며 기다림을 노래한다. 감귤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첫 수확하는 감귤밭에 야멸차게 몰아치는 링링, 타파, 미탁, 하기비스 같은 태풍에는 '어린 것,/ 그만 흔들고/ 차라리 내 뺨을 쳐라'('내 뺨을 쳐라')고 목청을 돋운다.

시인은 감귤나무에 더해 꽃기린, 괭이밥, 각시투구꽃, 왕관무릇, 개구리발톱꽃, 흰 접시꽃 등 자연물을 시제로 택해 세태를 읽고 있다. 동백꽃 한 송이 없는 곳이 싫어('첫차') 밤새 뒤척인 화자는 소원 들어주는 제주 밖 어느 사찰에 올라서도 동백('향일암 동백')을 찾는다.

제주섬에선 농부들이 밭일만 하진 않는다. 물질하는 틈틈이 농사짓는 이도 있다. 시에 흩어진 농부의 시선이 바다밭으로 향하는 건 시인이 제주 설화를 빌어와 쓴 '쇠죽은못'처럼 노동해온 제주 여자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표제시 '어쩌다 맑음'의 어머니도 그런 생을 건너왔다. 시인은 그들의 남은 나날이 꿈을 꾸듯 환해지길 바란다. 황금알.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